

중국경제현안

브리핑

제02-12호 / 2002년 2월 1일

중국 금융공작회의, 은행감독국 신설 결정

□ 중국 금융공작회의가 2월 5일~7일 개최되었는바,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인민은행 산하에 은행감독국을 신설기로 결정함.

- 1997년 이후 5년만에 열린 이번 회의에는 江澤民 주석, 朱鎔基 총리를 비롯한 중국정부 고위 관료들이 대거 참석했으며, 주요 의제로 금융감독 강화, 금융개혁 심화, 금융서비스 개선 등이 집중 논의되었음.

1. 금융공작회의 주요 내용

□ 중국의 금융분야는 감독관리 취약, 금융기업의 경영메커니즘 비효율성, 사회신용관념 결여, 전문인력 부족, 서비스 수준 및 혁신능력 저하, 금융시장질서 혼란 등의 문제점을 갖고 있음.

- 따라서 향후 금융사업은 감독관리 강화, 금융기관 개혁, 사회신용제도 수립, 통화정책의 효율성 강화 등의 측면에 주안점을 두어야 함.

□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은 법과 규범에 의한 경영과 경쟁을 유지해야 하며, 효과

* KIEP 북경사무소는 종전의 <중국경제동향보고>를 <중국경제현안 브리핑>으로 제호를 바꾸고 중국경제의 다양한 현안에 대한 보다 신속한 분석자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적인 자산관리가 필요한바 인민은행 산하에 은행감독국을 신설하여 은행산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함.

□ 이번 공작회의에서 의결된 각 금융기관별 개혁 과제는 다음과 같음.

- 국유은행의 개혁은 정부가 대주주 지위를 유지하는 가운데 주식제 상업은행으로 개편하고, 경영관리 및 대출시스템의 측면에서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함.
 - 특히, 내부관리시스템을 강화하고, 대출 5등급 제도를 통해 부실대출의 비중을 줄여 나가도록 함.
 - 농촌신용사는 재산권 관계와 관리책임을 명확히 하고, 농촌 및 농민에 대한 서비스 기능을 강화함.
 - 증권시장은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법제, 감독관리, 자율, 규범’의 방침을 지속하여 시장지향적인 증권시장을 육성하고, 직접융자의 비중을 높임.
 - 내부통제제도를 완비하고 정보의 투명성과 불법거래 행위를 엄단해야 함. 특히 개인투자자의 권익을 보장함.
 - 보험분야에 있어서 국유 보험사의 경영 활성화와 경쟁능력 향상을 위해 주식제 개편을 가속화하고, 외국기업으로부터 선진기술과 관리경험을 도입해야 함.
 - 보험감독관리 강화, 보험중개시장 규범화, 재보험시장 육성, 자금운용경로 확장 등을 추진함.
- 이밖에 신용카드에 대한 법·제도를 정비하여 신용카드의 활용을 장려하고, 신용불량자에 대한 처리규정을 마련함.
- 국채프로젝트 및 중점사업에 대한 대출을 확대하고 특히 농업부문과 중소형 비국유기업에 대한 대출을 장려함.

2. 은행감독국 설립 배경과 시사점

□ 지난 90년대 후반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된 금융개혁 정책에도 불구하고 중국 금융기관은 여전히 불량자산과 부실경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중국 정부는 98년 말까지 1조 4천억 위엔을 투입하여 4대 국유 상업은행의 부실채권을 자산관리공사로 이전하여 은행자산의 건전화를 시도하였음.

- o 그러나 이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은행의 부실채권은 지난 3년간 오히려 6천억 위엔이나 증가하였음.

- 현재 4대 국유은행의 공식적인 부실채권 규모는 전체 대출의 27%인 1조 8천억 위엔이며, 자산관리공사에 남아있는 부실채권을 합치면 2조 8천억 위엔임.

- 또한 4대 국유상업은행 이외 민간 상업은행, 농촌신용사 등의 공표되지 않은 부실채권까지 감안하면 은행부문의 부실채권은 GDP의 30%를 초과할 것으로 추정됨.

□ 은행감독국 설립에는 최근 잇따른 금융부패 사건이 촉매작용을 한 것으로 알려짐.

- 지난 1월 중국은행 미국 지사가 부정거래로 미 정부로부터 2천만 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 받았으며, 건설은행 행장이 부패사건에 연루되어 파면되고, 관련 수사가 진행중임.

□ 금융 전문가들은 증권감독위와 보험감독위가 중앙은행에서 독립된 기구임을 들어 은행감독국을 인민은행에서 독립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단기적으로는 실현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일반적인 중앙은행과는 달리 중국 인민은행은 통화정책 수립에 대한 권한이 매우 약하며, 통화정책 운용과 금융기관 감독이 주된 기능인바, 은행감독 기능을 독립시킬 경우 인민은행의 위상과 기능은 상당히 약화될 수밖에 없음.

- 따라서 인민은행이 통화정책의 수립과 운용에서 보다 더 많은 자율성을 확보하기 전까지는 은행감독 기능이 인민은행에서 분리되기 어려울 것임.(***)